

탈북자들의 남한 방송 및 문화 수용을 통해 본 통일 이후의 방송전략 1)

홍 석 경 (방송위원회)

이 창 현 (국민대학교 언론학부)**2)

차 례

- I. 서론
- II. 통일방송연구의 현황과 과제
- III. 탈북자들의 인터뷰 조사
- IV. 남한방송 수용의 특성
- V. 남한문화 수용의 특성
- VI. 결론

I. 서론

북한주민의 남한 방송 및 문화 수용현황은 북한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이제까지 연구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탈북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북한주민의 방송 및 문화상을 간접적으로 분석해보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예컨대, KBS (1994, 1998c)의 탈북자 조사는 이들 대다수가 남한 방송을 접한 바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북한 주민들은 연변을 통해서 남한의 방송 및 문화를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통일방송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통일이후의 방송정책 수립에 있어서 통일방송을 수용할 잠재적 시청자인 북한주민의 전반적인 문화수용실태, 구체적으로는 남한 방송 및 문화에 대한 수용 및 이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방송에 있어서 남북한 교류 및 통합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많았다. 1980년대 말부터 남북한 방송교류와 관련된 논의가 많았으며, 이들 논의는 1990년대에는 자연스럽게

1) 이 논문은 필자들이 1998년 수행한 KBS 통일방송연구소의 연구과제 “北韓住民의 對外 미디어 및 大衆文化 接觸現況과 KBS 統一放送의 指向點”의 수행과정에서 진행된 탈북자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심층 분석한 것이다.

2) * 방송위원회 연구위원, ** 국민대학교 언론학부 교수

게 남북한 방송통합에 대한 연구로 옮겨왔다. 남북한 방송통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통일방송의 구조 및 체제 (박종수, 1997, 유재천, 1997, 이정춘, 1997, 강현두, 1998), 프로그램 편성 (이우승, 1997), 기술적 통합 (송재극, 1998)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일방송의 구조와 체제, 편성, 기술 등에 대한 제반논의들이 통일방송의 중요한 목표 수용자인 북한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논의가 추상적인 수준에서 맴돌거나, 궁극적인 목표수용자들의 상황과는 유리된 비현실적인 정책제안 일 수 있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실질적으로 탈북자들이 남한 방송 및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북한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고, 통일 지향적인 방향성을 갖는 실현가능성 높은 통일방송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특히, 급격통일이든, 점진통일이든 통일 이후 초기단계의 방송정책의 수립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II. 통일방송연구의 현황과 과제

분단체제하에서 남북한 방송은 각기 자신의 체제 이데올로기를 강화 발전시키는데 동원되어왔다. 남한방송은 남한방송대로, 북한방송은 북한방송대로 자신의 체제를 옹호하고, 상대방의 체제를 비판함으로써 체제유지 및 재생산 기능을 담당해왔던 것이다 (이창현, 1990).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정부의 통일정책도 점진적으로 체제 대립적 관점에서 벗어나면서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남북한간 교류 및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송분야에서도 교류 및 통합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강현두, 이창현(1989)은 '통일지향의 방송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이정춘(1990)은 '남북방송교류 촉진방안에 관한 고찰'이라는 글에서 통일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또 유재천(1990)은 '남북한의 통일언론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시작한 바 있으며 송재극, 진용옥(1990)은 '남북방송 시스템의 상이성에 대한 기술적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1990년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박종수, 1992, 이정춘, 1997, 이우승, 1997)는 주장이 나타나면서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방송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이정춘(1996)은 '통일 이후 남북한의 방송통합'에 관한 논문에서 남북한 통합방송의 운영 방식에 대한 포괄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유동희(1996)는 '남북방송교류의 전망과 통일방송의 기능'이라는 논문에서 통일방송의 기능과 이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통일 이후의 방송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컨대 통신개발연구원(1992)에서는 '남북통일을 대비한 방송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남북한 방송체제 정비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한국방송개발원(1995)에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편성 및 내용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일 이후 프로그램 편성 및 내용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이렇듯 통일방송관련 연구는 1990년 이후에 본격화되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

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³⁾.

통일방송에 관한 기존 논의는 현 체제하에서 급격통일이든, 점진통일이든 통일의 단계를 설정한 후, 이에 따른 방송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특성은 기존 북한 방송연구의 경향(이창현,1999)과 유사하게 송신자, 프로그램 채널기술등의 연구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의 방송문화 수용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제안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분단체제하에서 남한의 연구자들이 북한주민을 직접 접할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 북한 내부에도 방송 및 문화수용의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사회와 그 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온 북한방송의 기존 연구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일방송의 실질적 수용자가 될 북한 주민들의 방송 및 문화 상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주민을 직접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수행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분단체제 속에서 북한주민의 방송문화 수용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집단이 남한내에 있는 탈북자들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탈북자가 북한에 있을 때, 그리고 남한에 왔을 때 남한 방송의 수용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남한 문화의 수용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 탈북자의 남한 방송 및 문화 수용의 특성에 부합하는 통일이후의 북한주민대상 방송전략은 무엇인가?

3) 연도별 통일방송 관련연구의 빈도

연도	석박사학위논문	일반연구논문
1990년대 이전	없음	없음
1990년		3(1)
1991년		5(1)
1992년	2(1)	11(3)
1993년		
1994년	1	1
1995년	1	1(1)
1996년	2	1
1997년		8(8)
1998년*		5(1)
전체	6(1)편	35(15)편

*1998년도는 전반기의 논문만을 분석하였음. 숫자는 방송교류, 방송개방, 통일방송전체와 관련된 내용을 나타내며 ()안의 숫자는 그 중에서 통일방송관련내용을 뜻한다(이창현, 1999).

즉 연구문제-1은 우선적으로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을 때와 남한에 왔을 때의 남한방송 및 문화의 수용 현황과 이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문제-2는 연구문제-1의 답을 통해서 얻은 탈북자의 남한 방송 및 문화 수용의 특성을 통해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방송전략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III. 탈북자들의 인터뷰 조사

본 논문의 탈북자 대상 인터뷰조사는 관계기관이 관리하는 탈북자 가운데 조사 가능한 18명을 선정하여 수행했는데 이들은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임의표집되었다. 실질적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연락과 동원은 탈북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졌다. 연구진들은 1998년 11월 6일(금), 11월 13일(금), 11월 20일(금)까지 3회에 걸쳐서 각 회당 6명씩 18명을 심층 면접하고자 했으나 이 가운데 한 명이 병 때문에 불참하여 총 17명에 대한 인터뷰를 완료할 수 있었다. 면접과정에서는 6명의 탈북자가 한 장소에서 인터뷰하면 시간관계상 심층적인 인터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2개조로 나누어 3명씩 인터뷰하였다. 결과적으로 탈북자 3명과 연구원 1명, 그리고 담당 조교 1명이 1개조가 되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매번 아침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2시간 30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이들은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보호관찰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관과 함께 인터뷰 장소에 왔으나, 경찰관이 입회하는 것이 솔직한 응답을 얻는데 장애가 될 것 같아서 이들은 별도의 대기장소에 머물도록 하였다. 탈북자들은 비교적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였는데, 특히 최근 탈북자에 대한 당국의 배려가 너무 적다는 불만까지도 표명하였다.

문헌연구로는 북한주민의 남한방송 접촉현황과 문화 수용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이차자료들(북한방문기, 탈북자 수기 등)을 살펴보았는데, 주로 1998년 시행된 KBS의 탈북자 조사를 활용했다.

표-1 인터뷰 한 탈북자의 인적사항

이름 (고유번호)성별	나이	출신교	탈북일	경유지	북한직업
오00 (1) 남자	64세	일본소학교	94년	중국	물류창고정리
황00 (2) 남자	27세	고등학교	95년	제3국	무역
윤00 (3) 남자	37세	전문대학	96년	러시아	무역
이00 (4) 남자	32세	대졸	96년	3국	무역
박00 (5) 남자	29세	전문교중퇴	98년	중국	농촌
강00 (6) 남자	40세	중학교	97년	중국	무산광산
최00 (7) 남자	31세	대학	98년	제3국	대학교원
김00 (8) 여자	57세	무	95년	중국	미용
임00 (9) 남자	30세	고등중학교	97년	3국	건축업
유00 (10) 남자	48세	중학교	97년	밀항선	대학과장
최00 (11) 남자	58세	대학	95년	제3국	공장공원
이00 (12) 여자	59세	중학교	97년	3국	요리사
주00 (13) 여자	51세	전문학교	97년	3국	농사
이00 (14) 여자	34세	대학	97년	중국	국가품질감독원
안00 (15) 남자	48세	대졸	97년	해상	무역업
이00 (16) 여자	30세	고등중학교	98년	중국	옷 공장
이00 (17) 여자	29세	식료전문학교	96년	중국	회령식료연합회사

질문의 내용은 북한주민들의 남한 방송 및 문화 수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을 때 (탈북전)의 남한 방송 및 문화 수용실태를 질문해보고, 그후 이들이 탈북 후 남한에 거주하면서 남한 방송 및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질문해보았다.

IV. 남한 방송 수용의 특성

1) 북한주민의 남한방송 수용

가) 극히 제한된 남한방송 청취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남한방송을 수신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인터뷰 결과 “남한방송은 원한다면 들을 수 있다⁴⁾”(3, 4)고 증언하고 있으나, 북

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그 대가는 너무 큰 것이어서, 이미 반체제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우연한 기회에 남한 방송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 행위를 지속할 수는 없다고 한다. 외국방송의 청취 단속이 심해 “모포로 가리고 (중국방송을) 몰래보지만 그거 한 번 잘 못하다 걸리면 가문이 망한다”(인터뷰ID-3, 인터뷰ID-4, 이후에는 번호만 사용함)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탈북자들은 “북에서 남한 (KBS) 방송을 듣는 사람은 100명에 한 명 정도일 것”(9, 11)이라고 언급하며, 그 이유는 “1차적으로는 라디오가 없어서 이고, 2차적으로는 상호감시가 심해서(10) 못 듣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북한주민들이 남한TV를 직접적으로 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다만, 남한TV화면은 국경 지역⁵⁾에서 중국 TV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니면 남한의 부정적인 뉴스와 관련된 북한방송의 자료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인터뷰 대상자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방중 화면도 연변TV를 통해서 보았다고 한다(3, 4).

결국, 남한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실제 북한주민의 수는 탈북자들만을 조사해서 얻는 수치인 57.6%⁶⁾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것도 라디오에 한정된 것이며 TV는 직접수신이 불가능하여 자료화면의 접촉만이 제한적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방송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보는 남한방송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충격을 완화해가면서 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중앙정부의 선전을 그대로 믿는다고 봐야 한다. 로동신문은 강통 들고 밥 빌어먹는 (남한) 어린아이들 사진조차도 (북한)주민들의 80-90%는 그대로 믿는다고 봐야 한다”(11)라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자기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이념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지배적 해독체제를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급격통일 이후의 방송정책은 이러한 과도기적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남한영상의 일탈해독

북한주민들은 남한방송을 극히 제한적으로 밖에는 접할 수 없는데, 이러한 단편적 남한 방송 접촉도 많은 잠재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조선중앙TV가 열심히 광주사태의 처참한 장면을 선전용으로 보도하였으나 북한 주민들은 그것을 “남한에는 거지들이 밥 빌어먹고 살아간다고 했는데, 지방도시에 웬 고층건물이 이리 많고, 전부 피똥피똥 체격이 좋은가? 휘두르는 손목에 빛나는 멋진 시계!, 저렇게 대규모로 싸울 수 있다니 남한은 자유로운 세계인가보다”(10)라고 일탈적인 해독(aberrant decoding)을 했다. 이처럼 남한에 대한 영상이 일

-
- 4) 아래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인터뷰 결과를 종합한 내용이다. () 속의 번호는 그 말을 한 인터뷰 대상자의 고유번호이다. 인터뷰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탈북자 신변의 안전을 위해 이름을 제외한 정보만을 부록으로 정리하였다.
- 5) 중국 국경지대의 도시에서는 중국 TV시청률이 상당히 높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특히 신의주, 혜령, 무산지역에서는 중국방송을 많이 시청한다고 한다. 그 결과, “신의주 사람들이 평양사람들 보다 훨씬 많이 켜”(7) 상태라고 한다.
- 6) KBS(1988)의 탈북자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과반수(57.6%)가 남한방송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을 학력별로 나누어보았을 때, 중졸이하 36.4%, 고졸 59.1%, 대졸 62.8%, 전문교육이상 64.7%가 남한방송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학력이 높을수록 남한방송을 많이 청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역적으로는 황해도 출신의 응답자 가운데 50%, 평안도 출신의 응답자 가운데 43.5%가 ‘거의 매일’ 남한 방송을 청취했다고 답했다.

탈 해독되어 역선전의 빌미를 제공하게되자 이후로는 남한관련 뉴스에서 영상자체가 사라졌다고 하며, 90년 이후엔 그나마 부족하고 편파적이던 해외소식을 줄여 북한주민에 대한 대외 정보차단을 더욱 강화했다.⁷⁾

결국 북한 조선중앙TV의 경우, 그 동안 몇 차례 경험을 통해 더 이상 남한에 대한 뉴스에서 영상을 전달하지 않는 영상 공포증(image-phobia)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방송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단순히 남한에 대한 영상 자체만으로도 북한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선망과 동요를 불러일으키게 되리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탈북자들은 북한방송을 “아주 재미없는 방송(3)”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 텔레비전은 볼게 없어요. 애들도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를 안다. 그리고 채널이 하나인데 요 보면 뭐해요. 순번제로 하니 봐도 재미가 없습니다”(4) “TV는 조선중앙방송밖에 안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김정일 현지도도를 하면 그것을 한시간에 한번씩 보내주는데 그것을 매일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3)” “연변TV가 북한에 개방되어도 북한방송에서 1년 볼 거 한 주일에 다 보는 거다(15)”라고 응답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상업화되어 있는 남한방송의 접촉은 엄청난 자극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주민들은 자본주의적 텔레비전 방송에 익숙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분단이후에 정치사회화 받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에 노출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정해서 북한주민들에게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편성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탈북 후의 남한방송 평가

가) 뉴스를 통한 변화의 적응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본 텔레비전⁸⁾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KBS의 ‘9시 뉴스’를 가장 재미있어하고 유익해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연속극인 ‘보고 또 보고’, 사극 ‘왕과 비’등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남한내의 인기프로그램으로서 탈북자들의 인식이 남한주민들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가장 유익한 TV프로그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9시 뉴스’에 이어 ‘야망의 전설’, ‘토론 및 시사물’, ‘성공 시대’ 등이 이어졌다.

7)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남북한 방송교류를 위한 접근전략에 관한 연구>, 1994, 2, 제 1권, p.5.

8) KBS의 조사(1998)에 의하면 탈북자들의 남한생활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미디어는 텔레비전이라고 응답 (89%,복수응답) 했다

남한생활 적응에 도움을 준 매체 (복수 응답)

	응답자수	%
(1) 텔레비전	105	89.0
(2) 일간신문	64	54.2
(3) 라디오	20	16.9
(4) 시사주간지	10	8.5
전체	118	100.0

출처: KBS(1988).

표-2 탈북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남한 프로그램

분류	가장 재미있는 TV 프로그램	가장 유익한 TV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KBS의 저녁 9시 뉴스(8건) MBC의 보고 또 보고(2건) KBS의 왕과비(용의눈물)(2건) MBC 테마게임(1건) SBS 백야 3.98(1건)	KBS의 저녁 9시 뉴스(6건) KBS의 야망의 전설(1건) KBS의 토론 및 시사물(1건) KBS의 왕과비(용의눈물)(1건) MBC의 성공시대(1건) MBC 테마게임(1건) MBC 뉴스데스크(1건) SBS의 순풍 산부인과(1건) SBS의 모래시계(1건) SBS 백야 3.98(1건) 경제와 세계에 대한 뉴스들(1건) MBC와 KBS의 불우 이웃 돕기방송(1건)

주목할 것은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가장 유익하게 보는 프로그램으로 KBS의 '9시 뉴스' 프로그램을 지목했다는 점이다. 탈북자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상반된 남한 체제에 와서 남한사회의 다양한 면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서 뉴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변화된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구 (information seeking behavior)하고 있다. 그러므로 탈북자들은 물론이고, 통일이후 북한주민을 향한 정보전달통로로서 텔레비전 메인 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북한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

탈북자들은 하나같이 남한의 방송 내용 중 북한주민을 웃음의 소재로 묘사하는 코미디며 '남북의 창' 등 북한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코미디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데, SBS의 'LA아리랑'에 나온 탈북자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심각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3,4). 그리고 "인천방송의 '남남북녀'등의 프로그램도 아주 없애거나 방송을 하려면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7)는 발언을 보인다. 불만의 주된 내용은 북한사람들을 너무 수준 낮게 (음식도둑 등으로) 보며, 이것이 남북한간 이질화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표-4 탈북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남한 프로그램

분류	가장 이질감 느끼는 TV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남북의 창, 통일 전망대등 북한관련 프로그램(5건) 젊은이들이 나와서 춤추는 쇼프로그램(5건) 북한사람을 소재로 한 코미디(2건) 사랑에 대해 다룬 드라마들(1건) 정치인들이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1건) 부정 부패와 비리를 폭로하는 프로들(1건) 청소년과 학생들의 매춘과 탈선을 다루는 프로들(1건) 교향을 다룬 프로그램(1건)

탈북자들은 "북한관련 프로그램의 목적이 남한사람에게 북한을 올바르게 알려주자는 것인

데, 북한 프로 중에서 너무 저급한 것만 보여준다. 사실 북한과 남한의 사고방식의 간격은 크지 않으나 매체들로 인해 간격이 더욱 커진다”(7)라고 생각한다. 특히, 탈북자들은 “남북의 창’이 인민들을 서로 대립하게 하는 프로그램”(6)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특집들은 가장 식량난이 심각한 지역만을 찍은 것이며 인육을 먹는다는 보도는 말도 안 된다”고 강조하며 “북한에 대해 하향평가를 하고, 비인도적인 뉴스를 집속시켜 통일되면 남한의 젊은이들이 북한사람을 어떻게 대처하겠는가(1)”라고 반문한다.

이들은 비록 자신들이 탈북을 했지만, 그래도 북한을 그리 ‘저급하게’ 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방향을 보다 통일 지향적으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탈북자들은 남한 10대 중심의 쇼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드라마 볼 때 한국드라마가 주로 사랑인데 사랑만 찾다보면 통일은 언제 신경을 쓰는가”(17)라는 비판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탈북한 사람들의 경우 “1-2년이 지나면서 사랑은 삶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17)”고 말한다. 그리고 “10대 자식들은 이 들 프로그램을 금방 좋아하게 되었다(15)”는 말을 하기도 했다.

V. 남한 문화 수용의 특성

1.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수용

가) 금지된 문화의 동경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대외문화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심지어 청바지와 티셔츠 (외국어가 적혀있는 것)를 자본주의 상품이라고 낙인을 찍어 못 입게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 청바지와 티셔츠의 인기는 엄청난 것이다. 중고 청바지도 없어서 못 사고, 개중엔 “탱크를 덮는 방수포를 훔쳐 청바지 비슷한 것을 만들어 입을 정도”(9)라고 한다. 또한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와 문구가 찍힌 티셔츠를 입고 거리에 나섰다 단속되어 중벌을 받은 청년도 있다”(9)고 한다.

이러한 대외 문화의 수용 욕구는 북한 TV화면에 나타난 남한문화의 모방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장발의 유행이 그 경우로, 남한 대학생들의 시위모습을 담은 현장화면(광주사태)이 담긴 뉴스를 보면서, 북한의 젊은이들은 북한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자긍심보다는 남한 대학생들의 멋있는 장발과 청바지를 꿈꾸고 모방한다는 것이다.

나) 대중가요의 힘

북한에서 남한의 문화 수용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있다고 해도 대부분 중국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유입된 것들이다. 이 가운데는 대표적인 것은 남한의 대중 가요이다. 대중가요는 녹음된 카세트⁹⁾를 통해 북한 사회에 쉽게 확산된다. 북한주민들은 카세트에 담긴 대중가

요가 남한가요인 것을 모르기도 하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국 조선족의 노래 또는 대남 공작용 노래라는 위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유입된 대중 문화나 매체를 소비하는 것보다 덜 위험하다.

남한가요의 수용은 공식적인 매체를 일탈적으로 해독(aberrant decoding)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일어난다. 대단한 성공을 거둔 <조국과 운명>이란 90분 짜리 30부작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영화에 삽입된 ‘낙화유수’나 ‘홍도야 우지마라’를 배우기 위해 북한주민들은 몇 번씩 영화를 반복해서 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남한의 대중가요는 북한 주민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서 다가가고 있다.

남북한은 노래를 사랑한다는 점에서 한민족임을 과시하는 듯 탈북자들은 “노래는 다 좋아한다. 노래 싫어하는 사람이 조선족 중에 어디 있겠습니까(5)라고 말한다. 특히, 북한 조선중앙TV의 전국노래자랑 프로그램은 남쪽의 주부가요열창 만큼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북한에서 유행했었거나 현재 인기 있는 남한의 대중가요들은 남북한이 공유하는 ‘노들 강변’, ‘아리랑’ 등 민요 이외에 ‘홍도야 우지 마라’,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님과 함께’, ‘당신은 모르실거야’, ‘집시여인’, ‘해뜰 날’ 등이다.

북한 주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채 한국의 대중가요를 듣지만, 그것이 한국의 노래임을 아는 순간 상당한 정서적 충격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 30세의 탈북자는(9)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라는 ‘님과 함께’를 듣고, 각박한 북한 현실 속에서 너무나 싱그럽고 행복한 느낌에 젖었다고 한다. 남한 대중가요의 선호는 탈북자들이 “북한노래를 획일적인 군대행진곡같이 느낀다”(8)는 점에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이후의 방송정책 수립에 있어서 대중가요가 담긴 프로그램 내용을 많이 제작하여 방송하는 것은 이념적인 갈등의 소지를 줄이면서도 남북한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시켜 낼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2. 탈북후 남한 문화의 평가

가) 남한 청소년 문화의 거부

탈북자들이 북에 있을 경우 자본주의 문화에 대해서 동경하고, 이것이 그의 탈북에 영향을 부분적이거나 미쳤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모든 외국문화를 가로막는 북한의 폐쇄체제에

9) 청바지, 장발, 옷 등이 가시적이기 때문에 쉽게 통제될 수 있고 제한적인 향유만 가능한 반면, 대중음악이 수록된 카세트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일종의 ‘대중문화’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세트는 복제가 쉽다. 카세트가 몰자부족의 북한사회에서 그나마 값싸고 쉽게 복제 가능하여 대중매체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카세트는 위장이 용이하다. 연변가수가 부른 한국 대중가요는 북한 주민들에 의해 중국 조선족의 대중가요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 남한 카세트를 들여오다 들켜도 중국(조선족)것인 줄 알고 샀다고 말함으로써 검열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3, 4). 게다가 대중가요는 사랑 등 보편적 정서에 소구하여 이념적 내용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내용상의 검열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대중가요의 위장성은 그 어떤 조건보다도 북한 내부에서 남한 대중가요의 유통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카세트는 보급이 편리하다. 즉 카세트가 다른 매체에 비해서 값싸고, 편리하게 보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카세트는 흑백 텔레비전이나, 컬러 텔레비전 나아가 비디오에 비해서 상당히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 반작용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이들의 태도는 실질적으로 남한에 와서는 많은 부분 비판적으로 변화한다.

탈북자들은 최근의 청소년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신세대들이 바지에 구멍내는 것 보기 싫다. 또 여학생들의 신발 큰 것 신고 다는 것하고, 바지를 자루 같이 입고 다니는데 보기 싫다”(8)고 말한다. 또 “HOT가 춤추고 노래부르는 장면 등은 나이든 분들이 보며 환멸 느낀다. 조선식이 아니라 미국 양키들의 문화가 다 들어왔다(15)”라고 비판한다. 특히, 남한문화를 수용함에 있어서 탈북자들 중 기성세대는 “신세대프로그가 이질적입니다. 책 읽듯이 노래하는 것(랩뮤직)이 가장 이질적입니다. 노래를 하는 것인지 글을 읽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6)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신세대는 이에 대한 수용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은 자신들과는 달리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것을 좋아한다(15)”라고 하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남한문화를 수용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북한 신세대들의 가치관과 전 세대들과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통일방송과 대북 문화정책을 위해서도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생각된다. 즉, 세대간의 차이를 고려한 전략적 편성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문화의 자부심과 재미

북한 대중문화의 공식영역을 장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영화이다. 북한의 영화 수준은 ‘남한과 상대가 되지 않게 높다’(3, 4)고 한다. 탈북자들은 여전히 북한의 역사적인, 전통적인 영화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남한의 춘향전은 사랑감정에만 치우친 것으로 우습고 수준이 낮지만, 북의 작품은 민족정서가 깊고, 연출이 좋다(9,10,11)라고 한다. 이와 같이 탈북자들은 북한문화에 대해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탈북 방송작가에 의하면 남한에서 방영한 ‘홍길동’, ‘임궫정’등을 북한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한에서 와보니 그렇지 않다고 한다. 즉 북한프로그램이 남한 프로그램과 비교될 때 재미의 차원에서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외국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북한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외국영화로는 주로 2차 대전 때 전쟁영화, 중국영화, 소련영화(3, 4)등이 있는데, 만수대 TV를 통해서 미국영화(주로 오래된 액션물)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중앙 TV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외국영화(주로, 동구TV의 영화)를 하는데, 서유럽과 미국의 오락영화들은 물론 아니지만, 개인송배 선전과 반복되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북한 TV를 지겨워하고 오락에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이들 외국영화는 매우 인기가 높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평가를 감안하여 우리의 통일이후의 방송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즉 대전제는 북한문화의 자부심을 손상치 않는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의 문화내용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재미의 요소를 제공해줄 수 있는 남한의 영화나 미국의 영화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점진적인 접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 결론

인터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북한 주민들은 남한방송을 청취하기 힘들며, 설사 이들 내용을 접하더라도 북한체제에 대한 저항적 이데올로기로 발전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체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념적 장치를 통해 내부적 의식화나 결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온 결과이다. 이러한 면은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서는 굶어죽으라고 하면 그냥 앉아 굶어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굶어죽으라고 하면 순순히 앉아 죽는다. 김일성이 참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놔다”(6)라는 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주민들은 현재 북한 권력층에 대한 불만은 많지만, 오랫동안 주체철학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교육받은 결과 높은 자존심을 지니고 있다. 북한체제를 일방적으로 폄하 하는 것을 북한주민들은 개인적인 자존심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반감과 열등감을 동시에 느끼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것은 탈북 후 한국사회에서의 생활을 통해 확인되기도 하고(“북한은 가난하지만, 생활비가 적게 든다”), 한국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너희는 옛날부터 잘살았느냐”, “북한도 자본주의 길을 걸었으면 남한만큼 발전되었을 것이다” 식의 반감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서 통일된 이후의 방송은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회적 통합의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은 이념 선전 등의 공격적인 방송의 효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북한 주민들은 비록 현행 북한정부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행복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실패한 권력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고 무료교육, 무상치료, 낮은 생활품 값 등 체제의 강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탈북자들은 “전단 뿌리면 반감만 산다, 그 비용 가지고 연변에 카세트를 풀어놓으면 그것이 북한에 그대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갖는다. 또한 “노태우-고르바초프 제주정상회담”을 쓴 뼈라는 민지만,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하는 사진”은 연출이라고 안 믿는다고 한다(7). 즉, 더 이상 공격적인 프로파간다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제공하는 정보전달이나, 보편적인 감수성에 소구하고 풍요로운 생활양식과 자유세계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대중가요와 같은 오락물이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방송의 내용은 “선전은 줄이고, 정보를 늘이며, 오락은 더욱 많이 제공(less propaganda, more information, much more entertainment)”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북한 체제비판과 남한 체제선전을 목표로 삼는 프로파간다로부터 좀더 많은 정보(자발적인 사고와 판단의 계기 제공)와 오락(동질적 감수성, 자유세계의 생활양식과 가치관 보급)을 전달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이후의 방송은 북한 사회체제를 급격히 변화시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점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남북간에 동질적 내용을 강조하고 이질적 내용은 나중에 점진적으로 융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방송은 북한주민들에게 북한사회에서 듣기 힘들었던 새로운 세계의 소식 등에 눈뜨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체제의 홍보를 직접하기 보다는 중립적 문화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통일방송정책은 북한 체제를 정면 비판하고 거부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보적, 정서적 소구를 통해서 북한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사고할 자료를 제공하고 민족의 정서적 동질

성을 증대해 가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는 체제 비판적 해설방송 보다 정보전달과 그 정보를 북한주민들에게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해설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대중가요 등 오락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대중가요의 프로그램은 통일후의 대북 방송편성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중가요는 기존의 남북 간 이념경쟁이나 체제비판을 기조로 하는 프로파간다와는 구별되는 비이념적인 내용이다. 마텔라르 (Mattelart) 식 정의에 따르면 오락(entertainment)으로서의 대중가요는 그 자체로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과 개인주의를 전파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과거와 같은 정치적 프로파간다와는 구별되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것이다.

북한사회에서는 공식적 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공식영역의 정보에 대한 일탈적 해독이 성행해 왔다. 그러므로 북한주민에게 통일 이후의 방송 뉴스가 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방송뉴스는 북한주민을 통일국가의 구성원으로 정치사회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주민들에게 남한방송의 존재양식과 철학에 대한 미디어 교육도 필요하다. 탈북자들은 “ 남한의 뉴스를 보고 교통사고, 강도강간, 화재폭발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처음엔 매우 혼란스럽고 무서웠다. 그런데 일년이 지나면서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주민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2)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미디어 이데올로기가 상이한 남한방송의 수용에 따른 부정적 평가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체계적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 강현두(1991). 남북한 방송교류의 현황과 미래의 모색. 《방송문화연구》 제3집 pp. 31-42.
- 강현두(1997). 북한 매스미디어론, 나남.
- 강현두(1998). 통일의 시대, 방송의 역할. 방송협회 주최 《북한방송개방,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심포지움. 발표논문, pp. 61-70.
- 강현두, 이창현(1989). 통일지향의 방송을 위하여. 《방송문화》 제100호, pp. 60-62.
- 강현두, 전석호(1992). 통일을 위한 방송의 역할.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문화방송 (편) 《동북아 지역에서의 방송질서 변화와 대책》 나남, pp. 347- 358.
- 문화방송(1996). 통일방송연구-1, 남북방송교류의 전망과 통일방송의 기능.
- 문화방송(1997). 통일문화연구-5, 남북한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통합과 방송.
- 문화방송(1997). 통일문화연구-6, 분단국 통합과 방송.
- 박종수(1991).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방송의 역할 : 남북방송교류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방송과 문화》 MBC창사 30주년기념 방송연구논총, pp. 279-407.
- 박종수(1992). 동서독 언론교류사례. 《남북한 언론교류》 한국언론연구원 연구서 19, pp. 197-264.
- 박종수(1997). 통일한국의 방송제도 통합방안. 한국방송학회 주최. 《통일한국의 방송정책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
-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1994). <남북한 방송교류를 위한 접근전략에 관한 연구>.
- 송재극(1998). 북한방송개방, 기술적 과제. 방송협회 '98 통일방송 세미나 종합보고서, pp. 33-45.
- 송재극 · 진용욱(1990). 남북방송 시스템의 상이성과 그 극복방안. 《방송연구》 겨울호, pp. 2-34.
- 숭실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1994). <북한의 문화정책>, 1994년도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 유동희(1996). 남북방송교류의 전망과 통일방송의 기능. 문화방송 통일방송연구- 1.
- 유재천(1990). 남북한의 통일언론정책. 《분단국의 통일언론정책》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심포지움 발표논문.
- 유재천(1997). 분단과정에서의 방송 -통일 지향적 역할 증대 방안. 문화방송 창사기념 제 1회 통일방송 국제포럼 《분단국 통합과 방송》, pp. 221-252.
- 윤덕희, 김도태(1992). <남북한 사회 · 문화 공동체 형성방안>, 민족통일연구원.
- 이우승(1996). 서독TV의 통일관련 프로그램 변천. 문화방송 창사기념 제1회 통일방송 국제포럼 《분단국 통합과 방송》, pp. 59-92.
- 이우승(1997). 통일방송프로그램과 국민통합. 가을철 한국방송학회 주최 통일과 방송 분과 발표.
- 이우승(1997). 통일후 국민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방안. 한국방송학회 주최, 《통일한국의 방송정책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
- 이정춘(1990). 남북방송교류 촉진방안에 관한 고찰. 《방송연구》 여름호, pp. 35-77.
- 이정춘(1997). 통일이후 남북한 방송통합- 새로운 남북통합 방송제도의 모색. 문화방송

제1회 통일방송 국제포럼 《분단국 통합과 방송》, pp. 253-296

이정춘, 전석호(1991). 《분단국의 통일과 방송정책》, 청림출판.

이창현(1990). 북한방송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 북한방송의 매체이데올로기 형성
성과 발달과정을 중심으로. 《신문연구》, pp. 201-215.

이창현(1993) 남북한 방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과제의 타당성 검토와 방송전문가들의
인식연구.

이창현(1998). <북한방송의 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및 KBS의 대응전략>, KBS통일방송연
구소.

이창현(1999). 남한에서의 북한방송 관련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연구. 한국언론학회 언론정
보학보, 통권12호, pp. 137-175.

채백, 이재현(1998). 중국 조선족의 언론과 문화, 부산대학교 출판부.

최영목(1997). 통일후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민통합방송의 역할. 한국방송학회 주
최 《통일한국의 방송정책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통신개발연구원(1992). 남북통일을 대비한 방송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개발원(1995). 통일에 대비한 방송프로그램 편성연구.

한국방송공사 통일방송연구소, 정책기획실(1998). <귀순, 탈북자들의 남북한 방송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보고서>.

한국방송공사(1994). <사회교육방송 듣고 왔디요>, 북한주민 청취확인기록 자료집.

한국방송공사(1998). 북한방송개방 영향 및 대응방안.

한국방송공사(1998). 북한의 방송.

한국방송협회(1998). <북한방송 개방,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98 통일방송 세미나
주제발표집.

Tristant Mattelart(1995). *Le cheval de Troie audiovisuel : Le rideau de fer à l'épreuve des radios et télévisions transfrontalières*, Grenoble :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